

#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간호 연구의 현황과 발전 과제

조 원 섭<sup>1</sup> · 유 명 순<sup>1</sup>

<sup>1</sup>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Problems and Prospects of Nursing Research on Job Stress in Korea*

Cho, Wonsup<sup>1</sup> · You, Myoungsoon<sup>1</sup>

<sup>1</sup>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주요어

직업, 업무, 직무 스트레스,  
문헌고찰

### Key words

Workplace, Occupations,  
Psychological stress, Review

### Correspondence

You, Myoungsoon  
Room 422, Building 221,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2774  
Fax: 82-2-762-9105  
E-mail: msyou@snu.ac.kr

투 고 일: 2012년 11월 12일

수 정 일: 2013년 1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1월 21일

### Abstract

**Purpos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job stress conducted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nursing research. **Methods:** A total of 395 articles (76 nursing science, 100 health science, 219 social science) selected from 'Korean Research Foundation Registered Journals' were reviewed. The papers were classified by criteria, focusing on research frameworks, topics and methodologies. **Results:**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articles since the 1990s. However, the following issues were discovered: lack of theoretical frameworks about factors related to job stress, a paucity of attention to sophisticated methodolog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trong measurement tools, and incoherence among the level of theory, level of measurement, and/or level of statistical analysis. **Conclusion:** Based on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proposed: increased efforts to develop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investigations, improvements in methodological rigor, research conduct with various job groups with different approaches such as qualitative or experimental research, and encouragement for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the study on job stress.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정신보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대 사회의 전문화, 다원화로 인한 생활양식 및 인간관계의 변화는 인간의 건강 수준과 제반 보건문제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과중이나

역할갈등 그리고 업무자율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Thoits, 1983).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직무 스트레스라고 정의한다(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1999).

직무 스트레스 연구의 의의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인사관리 분야의 가장

전통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직무 스트레스가 개인의 성과는 물론 조직 효과성을 낮추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는 현재의 이해는 1930년대 연구 이래 심리학 및 경영학 분야에 축적된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흔한 작업장 건강 문제로 전 세계 보건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1998년 직무 스트레스 연구와 교육 확대를 촉구한 <동경 선언> 이후 1999년에는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년에는 유럽 연합의 유럽위원회가 직무 스트레스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알렸고 한국의 노동부 역시 2002년에 산업안전보건법 내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내용을 삽입하여 사회적 이슈로 다룬바 있다(Kang et al., 2005). 나아가 직무 스트레스는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발표된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의 연평균 근로 시간인 1,766시간보다 31.7%가 많은 2,255시간을 일한다(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0). 장기노동이 어느 정도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긴 시간의 노동은 재해 발생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시에 다룰 연구가 필요하다(Chung et al., 2007).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는 직무 스트레스 관련 간호학 연구의 중요성을 특히 잘 함축하는 장(場)이다. 전통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고도의 지식/기술과 고강도의 휴먼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Herzlinger, 1997)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 자본의 보건의료 산업 참여가 본격화 되면서 병원 분야 전체적으로 가시적인 병원 구조 변화에서부터 환자에 대한 로열티와 편의성 강조 등 내부 운영까지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 병원으로의 의료 이용 집중 현상, 정부가 시행한 '간호등급제'로 인해 지방 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환자 집중이 심한 병원의 간호사들이나 인력이 줄어든 지방 병원의 간호사들 전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낳았다.

우리나라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연구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다(Kang et al., 2005). 그러나 그 양적 증가에 비해 기존 연구의 결과 고찰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며 동일한 개념 및 대상자에 대한 반복 연구 위주인 실정이다(Kim, 2007). 특히 간호학자가 수행한 직무 스트레스연구에 대한 논문분석 연구는 Lee (1996), Choi와 Jung (2004)의 임상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논문분석 연구, Kim과 Yoon (2002)의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논문분석 연구, Kim (2007)의 직무 스트레스관리중재 논문분석 연구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연구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정 분야와 주제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총괄하여 분석, 평가하는 노력은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지양하고, 선행연구들을 정련시키고, 확대시키며,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Lee, 1996). 직무 스트레스는 복합적인 개념이고 간호학, 보건학, 심리학, 경영학 및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가 고유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기여한 연구 분야이기도 하기에,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분류 틀을 적용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서 발표된 직무 스트레스 논문의 구조, 내용 및 방법론을 고찰하여 직무 스트레스 간호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검증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간호학 분야는 물론 직무 스트레스 연구 발전에 기여한 사회과학 및 의학 분야의 논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 간호연구의 향후 발전을 위한 통찰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총 395편의 직무 스트레스 논문을 간호학, 의학학과 사회과학 분야별로 분석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분류 체계는 직무 스트레스의 다학제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간호학 및 경영학과 보건학 등 인접 학문 분야에서 적용된 문헌 분류틀인 Lee (1996), Lee (2008)와 You (2010)의 틀을 수정 적용하였다.

### 2. 분석 대상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IA), 보건연구정보센터(RICH), 한국학술정보(KISS)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초록의 핵심어(Key words)에 '직무 스트레스', 또는 'job stress', 또는 'occupational stress'가 포함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총 725편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 논문이 발견되었고 이중 한국연구재단 비등재 학술지 187편과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 11편을 제외한 527편의 논문을 일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논문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의·약학' 분야의 23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76편, '사회과학' 분야의 82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22편, '예술체육' 분야 논문 45편, '자연과학' 분야 논문 37편, '공학' 분야 논문 32편, '복합학' 분야 논문 9편, '인문학' 분야 논문 3편, '농

수해' 분야 논문 3편이 각각 분류되었다. 간호학 연구를 간호학 외 의약학 분야 연구 및 사회과학 분야 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의학 및 간호학 학술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한국연구재단 '의약학' 분류를 '간호학' 및 '간호학 외 의·약학'(이후 의약학)분야로 재분류하였다. 이들 중에서 사회과학분야 중복 논문 3편을 제외한 뒤, 최종적으로 간호학 분야 학술지 9종 게재 논문 76편, 의약학 분야 학술지 14종 게재 논문 100편,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82종 게재 논문 219편, 총 39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 3. 분석 틀

직무 스트레스 선행 연구를 분류할 적절한 틀을 마련하는 것은 본 연구의 완성도를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간호학 분야의 기존 직무 스트레스 문헌 분석 연구는 Lee (1996)의 문헌 분류 틀을 적용했으나 이 틀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직무 스트레스 연구의 다학제적 성격과 다양한 방법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분류 틀이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인사·조직 분야의 문헌을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한 Lee (2008)의 분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분류 틀은 보건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Category	Classification
Year of Publication*	-
Affiliation of the First Author <sup>†</sup>	Classified by 'study area' criteria suggest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
Areas of Selected Journals*	Classified by 'journal' criteria suggest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Purpose <sup>‡</sup>	1. Diagnosis/Description 2. Prognosis/Prediction 3. Methodological Development 4. Others
Research Design*	1. Conceptual Study 2. Experimental Study 3. Survey 4. Qualitative Study 5. Mixed methods
Data Collection*	1. Questionnaire 2. Interview · Observation · Discussion 3. Physiological measure 4. Secondary data 5. No application
Data Type <sup>‡</sup>	1. Cross-sectional 2. Longitudinal 3. Others
Data Sources <sup>‡</sup>	1. Single Group & Single Organization 2. Single Group & Multi Organization 3. Multi Group & Single Organization 4. Multi Group & Multi Organization 5. Unknown 6. No application
Research Participants*	1. Nurse 2. General Worker 3. Manufacturing Worker 4. Service Worker 5. Non-Manufacturing Worker 6. Teacher 7. Government Officer 8. Others
Measurement Tool*	1. KOSS <sup>§</sup> 2. JCQ <sup>  </sup> 3. JSQ <sup>¶</sup> 4. Kim & Gu <sup>#</sup> 5. K-OSI <sup>**</sup> 6. Parker 7. Rizzo 8. Ivancevich 9. Self-developed 10. Others 11. No application
Significant Variables* & Key words <sup>‡</sup>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Dependent, and Mediating Variables were selected in Causality Analysis Model. Key words were reviewed.
Definition of Job Stress <sup>‡</sup>	1. Individual's reaction 2. Environmental stimulus 3. Individual-Environment interaction
Guiding Theory <sup>‡</sup>	1. Demand-Control Model 2. NIOSH <sup>††</sup> 3. Effort-Reward Imbalance Model 4. Non-specific 5. Others 6. No application
Level of Analysis <sup>‡</sup>	1. Individual 2. Group 3. Organization 4. Society 5. No application
Orientation of Research Implication <sup>‡</sup>	1. Individual Health 2. Management 3. Policy and system change 4. Methodology development

\*Category of Lee (1996); <sup>†</sup> Additional Category of Authors; <sup>‡</sup> Category of Lee (2008) & You (2010); <sup>§</sup> KO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up>||</sup> JCQ=Job Content Questionnaire; <sup>¶</sup> JSQ=Job Stress Questionnaire; <sup>#</sup> Kim & Gu=Mae Ja Kim & Mi Ok Gu (1984); <sup>\*\*</sup> K-OSI=Korean Version of Occupational Stress Inventory; <sup>††</sup>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의료 조직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한 You (2010)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또한 기존 문헌분류 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이 판단한 개념적 정의, 이론 사용, 연구 목적, 연구 합의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다 (Table 1).

- (1) 게재 시기
- (2) 저자 소속 분야: 제 1저자의 소속 기관 및 부서를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 (3) 발표 학술지: 발표된 학술지를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 (4) 연구 목적: 각 논문이 밝힌 기본 동기를 조사하여 현황 파악, 전망 예측, 연구 방법론 제고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 (5) 연구 설계: 각 논문을 개념 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질적 연구, 혼용 연구로 구분하였다. 개념 연구는 기존 연구의 소개·정리·검토, 개념적 비판·새 이론 및 모형을 제시한 논문이고,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혼용한 논문은 혼용 연구로 분류하였다.
- (6) 자료 수집방법, 종류, 수집범위: 수집방법은 설문조사, 면접·관찰·토의, 신체계측, 2차 자료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만일 하나의 논문에 하나 이상의 방법이 활용된 경우, 모든 방법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자료 종류는 횡단자료와 종단자료로 양분하였고, 자료 수집 범위는 직종과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직종·단일조직, 단일직종·다수조직, 다수직종·단일조직, 다수직종·다수조직, 기타로 구분하였다.
- (7) 연구 대상자: 간호사, 생산직 및 사무직 구별을 하지 않은 근로자,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직, 교사, 공무원, 기타로 분류하였다.
- (8) 측정 도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최초 도구를 수정한 경우 최종 수정자 명의로 기입하였다.
- (9) 주요 변수 및 핵심어: 우선 각 논문이 인과관계, 상관관계, 단순 변수 비교, 및 기타 중 무엇을 주로 분석했는지를 조사하고 이 중에서 인과관계 분석에 포함된 변수만을 대상으로 설명 변수는 개인/상황 요인으로, 종속 변수는 건강/직무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과 논문에 제시된 모든 핵심어를 조사하였다.
- (10) 개념적 정의: Kang과 Song (2008)의 직무 스트레스 개념 분류에 따라, 각 논문에서 정의한 직무 스트레스를 자극 개념, 반응 개념, 환경(자극)-개인(반응) 상호작용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 (11) 이론 사용: 논문에 해당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 이론을 밝혔

는지, 그랬다면 어떤 이론이었는지를 조사하였다.

- (12) 분석 수준: 논문이 성, 연령, 개인 효능감 등 개인 속성을 직무 스트레스와 연관 지어 분석했으면 개인 수준, 특정 집단별 직무 스트레스 영향 요인 연구는 집단 수준, 대상자가 속한 조직의 차이와 직무 스트레스를 연결했으면 조직,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사회구조의 차이에 따라 분석하면 사회 수준으로 분류했다.
- (13) 연구 합의: 논문의 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을 모두 살펴서 각 논문이 건강, 인사관리, 정책제도변화, 연구방법 개선 및 기타 중에서 어떤 합의를 제시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예컨대 개인 수준의 건강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제언은 '건강' 함의로, '체육 및 직무교육', '생산성', '갈등관리' 등은 집단 및 조직 수준에서 관리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분류하여 '인사관리' 구분하였다. 조직 수준 이상의 기업, 기관, 사회 차원에서 '근무 적정인원 배치를 위한 정책마련',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도입' 등을 제언한 경우 '정책 제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변수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지정, 새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연구방법 개선함의'로 분류하였다.

####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일차 자료 입력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이었다. 자료 코딩은 간호학, 보건학 및 조직관리학을 전공한 연구자 2명이 수행하였다. 연구자간 코딩 일치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딩된 결과 사이에서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반복 토의를 통해 일치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쳤다. 코딩자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는 일치코딩수를 총코딩수로 나눈 값으로(완전일치 수준  $r=1$ ), 최종 코딩 자료의 신뢰도는 0.854로 Kassarjian (1977)이 권장한 최소 신뢰도 0.85를 초과한다.

### 연구 결과

최종 분석 결과는 Table 2-A, Table 2-B와 같다.

#### 1. 게재 시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한정한다면, 직무 스트레스 연구 논문은 1991년에 처음 등장했다. 1990년대까지는 연구가 많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 추세는 간호학 외 의학학, 사회과학 분야 모두 동일했다(Figure 1). 한편 2010년도 논문 게재 건수가 2009년에 비해 줄어든 것처럼 보이

Table 2-A. Findings of Studies Included in the Literature Analysis

n (%)

Categories of Classification		Nursing Science	Health Science	Social Science
Research Purpose	Diagnosis/Description	70 ( 92.1)	93 ( 93.0)	211 ( 96.3)
	Prognosis/Prediction	5 ( 6.6)	1 ( 1.0)	3 ( 1.4)
	Methodological Development	1 ( 1.3)	5 ( 5.0)	3 ( 1.4)
	Others	-	1 ( 1.0)	2 ( 0.9)
	Total	76 (100.0)	100 (100.0)	219 (100.0)
Research Design	Conceptual Study	4 ( 5.3)	2 ( 2.0)	4 ( 1.8)
	Experimental Study	3 ( 3.9)	-	7 ( 3.2)
	Survey	67 ( 88.2)	95 ( 95.0)	202 ( 92.2)
	Qualitative Study	1 ( 1.3)	1 ( 1.0)	4 ( 1.8)
	Mixed methods	1 ( 1.3)	2 ( 2.0)	2 ( 0.9)
	Total	76 (100.0)	100 (100.0)	219 (100.0)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	71 ( 89.9)	95 ( 83.3)	211 ( 93.8)
	Interview · Observation · Discussion	2 ( 2.5)	3 ( 2.6)	9 ( 4.1)
	Physiological measure	2 ( 2.5)	10 ( 8.8)	1 ( 0.4)
	Secondary data	4 ( 5.1)	4 ( 3.5)	-
	No application	-	2 ( 1.8)	4 ( 1.8)
	Total	79 (100.0)	114 (100.0)	225 (100.0)
Data Type	Cross-sectional	71 ( 93.4)	92 ( 92.0)	213 ( 97.3)
	Longitudinal	1 ( 1.3)	5 ( 5.0)	-
	Others	4 ( 5.3)	3 ( 3.0)	6 ( 2.7)
	Total	76 (100.0)	100 (100.0)	219 (100.0)
Data Sources	Single Single Organization	22 ( 28.9)	3 ( 3.0)	4 ( 1.8)
	Group Multi Organization	31 ( 40.8)	30 ( 30.0)	89 ( 40.6)
	Multi Single Organization	6 ( 7.9)	20 ( 20.0)	12 ( 5.5)
	Group Multi Organization	13 ( 17.1)	43 ( 43.0)	106 ( 48.4)
	Unknown	-	-	2 ( 1.0)
	No application	4 ( 5.3)	4 ( 4.0)	6 ( 2.7)
	Total	76 (100.0)	100 (100.0)	219 (100.0)
Research Participants*	Nurse	45 ( 60.8)	5 ( 5.1)	4 ( 1.8)
	General Worker	11 ( 14.9)	26 ( 26.5)	29 ( 13.3)
	Manufacturing Worker	4 ( 5.4)	7 ( 7.1)	8 ( 3.7)
	Service Worker	4 ( 5.4)	6 ( 6.1)	56 ( 25.7)
	Non-Manufacturing Worker	3 ( 4.1)	6 ( 6.1)	3 ( 1.4)
	Teacher	-	-	46 ( 21.1)
	Government Officer	-	1 ( 1.0)	30 ( 13.8)
	Others	7 ( 9.4)	47 ( 48.1)	42 ( 19.2)
	Total	74 (100.0)	98 (100.0)	218 (100.0)

\*Multiple Coding Category

는 것은 본 연구의 논문 선정 시점이 2011년 1월이어서 2010년 도 후반기 게재 논문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저자 소속 분야

분야별 학술지 게재 논문 제 1저자를 조사한 결과, 간호학 학술지 직무 스트레스 연구 제 1저자는 간호학 분야 63명(82.9%), 보건학 분야 5명(6.6%), 의학 분야 2명(2.6%), 기타 6명(7.9%)으로 간호학자가 압도적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의학학 학술지에서도 의학 분야 연구자가 64명(64.0%)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

나 사회과학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자는 관광학(14.6%), 사회 복지학(14.6%), 교육학(14.6%), 심리학(11.9%), 경영학(11.0%), 보건학 3명(1.4%) 등으로 특정 분야 학자가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추가로, 직무 스트레스 연구의 학제간 교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학과 의약학 학술지 게재 논문 제 1 저자가 사회과학 분야 소속인 경우와 그 반대 경우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학 분야 연구에서 사회과학 분야 소속의 제 1저자는 전무하였으며 의약학 분야에서는 6건(3.4%) 있었다. 사회과학분야 발표 논문 중 간호학 및 의약학 분야 소속 제 1저자 연구 역시 3건(1.4%)에 불과하였다.

Table 2-B. Findings of Studies Included in the Literature Analysis

n (%)

Categories of Classification		Nursing Science	Health Science	Social Science
Measurement Tool	KOSS <sup>†</sup>	15 ( 19,7)	34 ( 34,0)	9 ( 4,1)
	JCQ <sup>‡</sup>	5 ( 6,6)	27 ( 27,0)	2 ( 0,9)
	JSQ <sup>§</sup>	7 ( 9,2)	2 ( 2,0)	1 ( 0,5)
	Kim & Gu <sup>  </sup>	11 ( 14,5)	1 ( 1,0)	1 ( 0,5)
	K-OSI <sup>¶</sup>	-	3 ( 3,0)	1 ( 0,5)
	Parker	-	-	14 ( 6,4)
	Rizzo	-	2 ( 2,0)	22 ( 10,0)
	Ivancevich	-	2 ( 2,0)	7 ( 3,2)
	Self-developed	7 ( 9,2)	4 ( 4,0)	28 ( 12,8)
	Others	25 ( 32,9)	16 ( 16,0)	121 ( 55,2)
	No application	6 ( 7,9)	9 ( 9,0)	13 ( 5,9)
	Total	76 (100,0)	100 (100,0)	219 (100,0)
Definition of Job Stress*	Individual's reaction	17 ( 65,4)	5 ( 71,4)	46 ( 58,2)
	Environmental stimulus	5 ( 19,2)	2 ( 28,6)	14 ( 17,7)
	Individual-Environment interaction	4 ( 15,4)	-	19 ( 24,1)
	Total	26 (100,0)	7 (100,0)	79 (100,0)
Guiding Theory*	Demand-Control Model	3 ( 3,9)	12 ( 11,8)	2 ( 0,9)
	NIOSH <sup>#</sup>	5 ( 6,6)	-	1 ( 0,5)
	Effort-Reward Imbalance Model	-	1 ( 1,0)	-
	Non-specific	65 ( 85,6)	83 ( 82,2)	209 ( 95,4)
	Others	-	3 ( 3,0)	6 ( 2,7)
	No application	3 ( 3,9)	2 ( 2,0)	1 ( 0,5)
	Total	76 (100,0)	101 (100,0)	219 (100,0)
Level of Analysis*	Individual	70 ( 92,1)	79 ( 75,2)	175 ( 75,4)
	Group	1 ( 1,3)	23 ( 21,9)	35 ( 15,1)
	Organization	-	-	11 ( 4,8)
	Society	-	-	1 ( 0,4)
	No application	5 ( 6,6)	3 ( 2,9)	10 ( 4,3)
	Total	76 (100,0)	105 (100,0)	232 (100,0)
Orientation of Research Implication*	Individual Health	5 ( 4,0)	15 ( 9,2)	5 ( 1,4)
	Management	37 ( 29,8)	44 ( 27,0)	156 ( 42,3)
	Policy and system change	56 ( 45,2)	68 ( 41,7)	161 ( 43,6)
	Methodology development	26 ( 21,0)	36 ( 22,1)	47 ( 12,7)
	Total	124 (100,0)	163 (100,0)	369 (100,0)

\*Multiple Coding Category; <sup>†</sup>KO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up>‡</sup>JCQ=Job Content Questionnaire; <sup>§</sup>JSQ=Job Stress Questionnaire; <sup>||</sup>Kim & Gu=Mae Ja Kim & Mi Ok Gu (1984); <sup>¶</sup>K-OSI=Korean Version of Occupational Stress Inventory; <sup>#</sup>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3. 발표 학술지

직무 스트레스 연구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간호학 학술지 9종, 의약학 학술지 14종, 사회과학 학술지 82종, 총 105종으로, 사회과학 학술지는 학술지당 출간 논문수가 적어 학술지 분야별로 묶어서 조사했는데 대부분 교육학, 관광학, 경영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간호학 학술지의 경우는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에 32편(42.1%), 간호행정학회지 19편(25.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편(6.6%), 성인간호학회지 5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5편이 게재되었고, 의약학 학술지의 경우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가 총 57편(57.0%), 예방의학회지 11편(11.0%), 신경정신의학 7편(7.0%)으로,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보건학 분야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 4. 연구 목적

간호학 분야 게재 논문의 92.1%가 직무 스트레스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였고, 예측과 전망을 취지로 한 연구는 6.6%, 방법론 제고 연구는 1.3%이었다. 의약학분야와 사회과학분야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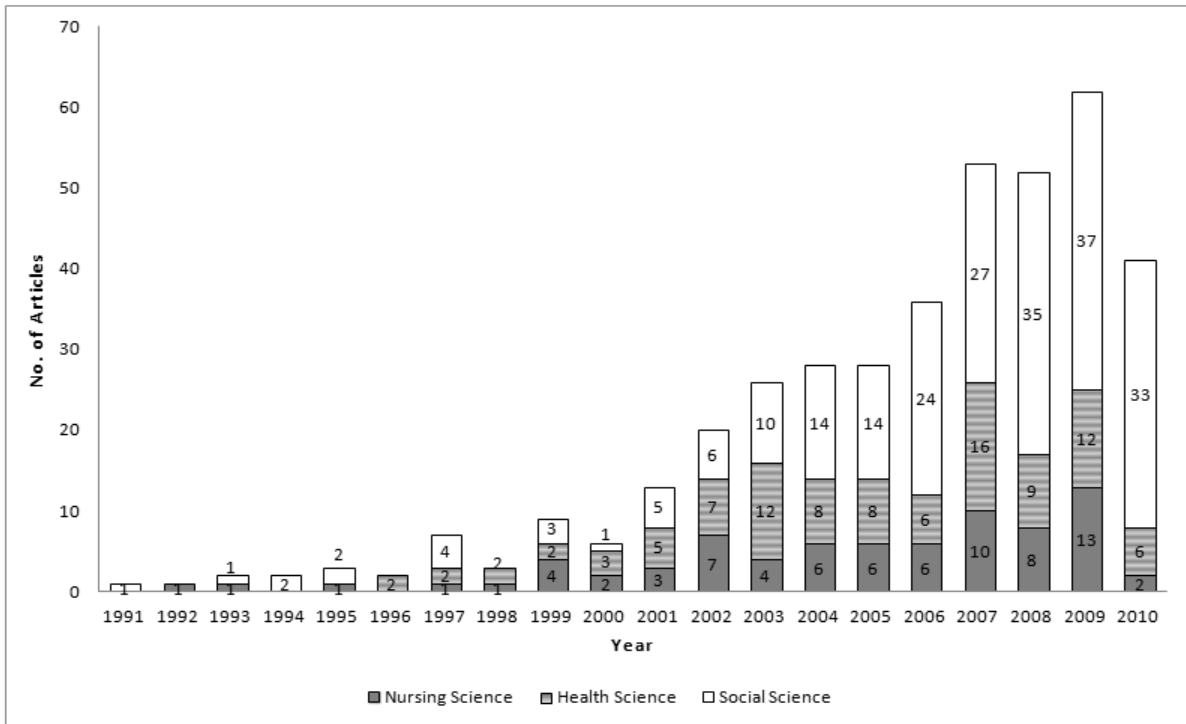


Figure 1. Number of articles in each research area.

이와 같은 경향이 발견되어 현황 파악 연구가 각 93.0%, 96.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세 학문 분야에서 현황 파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의학학 분야의 경우 방법론 제고 논문이 5.0%인데 반해 간호학 분야 방법론 제고 연구는 1.3%에 불과했다.

5. 연구 설계

간호학 분야는 의학학,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 설계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요한 연구 설계방법은 조사연구 (67편, 88.2%)이었다. 그 외 기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검토한 문헌고찰 논문이 4편(5.3%), 실험연구 3편(3.9%), 질적 연구 1편(1.3%), 혼용 연구 1편(1.3%)이었다. 의학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문헌고찰한 연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6. 자료 수집방법, 종류, 수집범위

분석 대상 논문의 절대 다수(95.4%)가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의학학 분야의 전화설문 연구 1편과 사회과학 분야의 면접설문 연구 1편을 제외한 총 375편의 논문이 자기 기

입 형태의 설문이었다. 분석 대상 논문 대부분이 횡단적(cross-sectional)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총 6편만이 종단적 자료를 분석했는데 간호학(1편, 1.3%)과 의학학(5편, 5.0%)으로 사회과학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서는 전무하였다. 한편, 간호학 연구에서 69.7%(53편)가 단일 직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이 중 다수 조직에 근무하는 단일 직종 연구가 40.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의학학의 경우 63.0%(63편)가 다수 직종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회과학 연구는 단일 직종 42.4%, 다수 직종 53.9%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7.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 조사 결과, 간호학 분야는 간호사(60.8%)가 연구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간호학과 의학학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제 1저자 소속 분야와 비교해 본 결과, 간호학 분야에 소속된 제 1저자의 연구 대상 중 60.3%가 간호사인 반면, 의학 분야에 소속된 제 1저자의 연구 대상 중 7.8%가 의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과학 분야는 판매서비스종사자(25.7%)와 교사(21.1%)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의학학 분야는 일반근로자(26.5%) 외 생산직근로자, 판매서비스종사자, 사무직근로자, 간호사 등 다양한 대상을 연구했다.

8. 측정 도구

우리나라 직무 스트레스 연구에 가장 많이 적용된 도구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였다(Chang et al., 2005). KOSS는 발표 첫 해인 2005년

에는 간호학 학술지 게재 논문 6편 중 0편, 2006년에는 6편 중 2편에 사용되었으나, 2007년 10편 중 3편, 2009년 13편 중 7편에 적용되었다. 의약학 학술지에도 2005년 게재 논문 8편 중 2편에서, 2009년에는 12편중 10편에 쓰였다. 최근에는 사회과학 분야 게재 논문에도 KOSS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간호학 분야

Table 3.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n Reviewed Studies

n (%)

Categories of Classification		Nursing Science	Health Science	Social Science
Independent Variable	Individual	Age Gender Behavior Health status fatigue* sleep*	Age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anxiety* depression* digestion problem* cardiovascular disease*	Age Gender Belief Integrity Passion Self-efficacy/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Situational	Job satisfaction Job characteristics department* position* place of work* shift work* work overload* number of employees* type of hospital*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Job characteristics no. of work hours* type of work* specialized area* awareness of position* total years of work*	Job characteristics Leadership Type of leader Emotional labor Pay for performance Environmental support
No. of articles		9 (11.8)	4 ( 4.0)	24 (11.0)
Mediating Variable	Independen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climate	Age Personality type Self-esteem No. of work hours Social support	Psychosocial problems Emotional intelligence Lotus of control Organization structure Job characteristics Environment characteristics
	Dependent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Performance	Psychosocial stress Mental health Fatigue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ression Burnout
No. of articles		4 ( 5.3)	4 ( 4.0)	33 (15.1)
Dependent Variable	Health related	Depression Burnout	Depression Anxiety Pain Musculoskeletal disease	Depression Burnout Tension
	Work related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Job effectiveness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No. of articles		17 (22.4)	30 (30.0)	43 (19.6)
No. of articles indica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30 (39.5)	38 (38.0)	100 (45.7)
No. of articles using causality analysis model		35 (46.1)	46 (46.0)	166 (75.8)

\*Variable Example.



는 KOSS,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 Job Stress Questionnaire (JSQ), Kim과 Gu (1984) 도구가, 의약학 분야는 KOSS, JCQ 등이 빈번히 쓰이는 측정도구였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수 사용되었던 Rizzo, House와 Lirtzman (1970) 및 Parker와 DeCotis (1983)의 도구(16.4%)가 간호학 분야에 사용된 적은 없었다. 약 9%의 간호학 연구가 연구진이 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32.9%가 선행 연구에 적용된 도구를 임의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했다. 사회과학 분야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의약학 분야의 경우 KOSS, JCQ 등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를 수정하지 않고 적용한 연구 논문이 61.0%를 차지했다.

## 9. 주요 변수 및 핵심어

모형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된 직무 스트레스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과적 모델 분석을 시도한 연구에 한정하여 주요 변수를 분석하였다. 인과적 모델 분석 연구는 간호학 분야 35편, 의약학 분야 46편, 사회과학 분야 166편으로 전체의 62.5% (총 247편)이었다.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된 변수를 개인/상황 요인과 건강/직무 결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세 분야 모두 직무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보기 보다는 직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이 많았다. 여기에는 학문 분야별 차이가 있었는데 간호학의 경우 직장 태도 변수가 주요 변수로 확인된 반면 의약학 논문은 질환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지지 받았다. 사회과학 논문은 간호학 연구와 유사하게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만족', '직무몰입', '이직의도' 등 직장 태도 변수들이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직무 스트레스 관련 현상을 매개변수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간호학과 의약학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더 많았다(Table 3).

추가로, 연구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395편의 논문에서 핵심어를 찾아 공통 핵심어와 분야별로 고유하게 사용된 핵심어를 정리해 본 결과, 세 분야 모두 직무태도 관련 핵심어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의약학 분야 게재논문은 건강상태를, 사회과학 분야 논문은 성실성이나 사고양식 같은 개인 변수와 역할 개념을 주요어로 채택한 반면, 간호학 분야 논문은 의약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 주요 핵심어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 10. 개념적 정의

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가 분야별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총 395편 중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 정의를 내린 논문은 112편(28.4%)으로 대부분이 연구 방법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조작적 정의를 명시하고 있었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간호학 연구 26편(34.2%)과 사회과학 연구 79편(36.1%)이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고, 의약학 연구는 7편(7.0%)이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또한, 세 학문 분야 모두 직무 스트레스를 개인·환경의 상호작용보다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반응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무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 정의한 논문은 간호학 4편(15.4%), 의약학 0편(0%), 사회과학 19편(24.1%)이었다.

## 11. 이론 사용

이번 조사 대상의 90.4%가 연구 가설의 기초를 제시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서 결과를 제시했다. 이론을 제시한 간호학 연구는 전체의 10.5%(8편)였고, 의약학 연구는 15.8%(16편), 사회과학 연구는 4.1%(9편)에 불과했다. 이론을 제시한 간호학 연구 중 3편은 Demand-Control Model을, 5편은 NIOSH 모델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다. 간호학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의약학 및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사용된 이론으로 대표적 직무스트레스 모형 중 하나인 Effort-Reward Imbalance Model (Kang et al., 2005) 외 Glasser (1983)의 선택이론, Harrison (1978)의 인간환경적합성 이론, Baltes와 Baltes (1990)의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등이 있었다.

## 12. 분석 수준

분석 대상의 82%가 개인 수준에서, 14.9%가 집단 수준에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간호학 분야 개인 수준 분석 연구 70편(92.1%)과 집단 수준 분석 연구 1편(1.3%)에 비해 의약학 분야 개인 수준 분석 연구는 79편(75.2%), 집단 수준 분석 연구는 23편(21.9%)이었다.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 분석 연구가 175편(75.4%)으로 주를 이루었으나, 집단 수준 연구와 조직 수준 연구도 각 35편(15.1%), 11편(4.8%) 확인되었다.

## 13. 연구 함의

총 656 가지 연구 함의를 분석한 결과, 간호학 분야와 의약학 분야에서는 정책과 제도 변화(45.2%, 41.7%)를 주로 논의하고 그 다음으로 인사조직 관리 방안(29.8%, 27.0%)을 제언하는 반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사조직 관리(42.3%)와 정책 제도 변화(43.6%)가 비슷한 비율로 논의되었다. 간호학과 사회과학 분

야에서 개인이 건강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각 5편(4.0%), 5편(1.4%)의 논문에서 확인되는데, 의약학 분야에서는 15편(9.2%)의 논문에서 개인 건강 개선 제언을 주장하고 있었다.

## 논 의

### 1. 연구 결과 논의

이번 연구를 통해 간호학 분야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간호학 연구자들의 노고의 반영물이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다른 학문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대안이 필요한 점 역시 드러났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연구상 미분화

Choe와 Park (1993)은 한 분야의 연구들이 연구 주제, 연구 설계,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 자료수집 방법에서 특정 방식에 과도하게 치우친 것을 “연구상(像)의 미분화”로 설명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간호학 연구 동향에서 이런 경향을 파악하였다. 현황 파악 목적 연구(92.1%), 조사연구(88.2%), 횡단면 자료 이용 연구(93.4%), 설문지 자료 수집 연구(89.9%)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Lee (1996)는 특정 자료수집 방법에 치우친 연구의 경우 자료의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면접, 관찰, 신체계측 등 다양한 보완적 방법의 자료 수집을 주장하였다. 특히 횡단적 분석 위주의 경향은 현상의 인과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를 둘러싼 개인, 심리, 문화, 조직적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크고 표본의 선택오류와 응답오류의 위험 역시 존재하므로, 반드시 연구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계량적 조사연구 위주의 현황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전보다 개념 연구와 문헌 연구 논문 투고를 장려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문으로 질적 연구를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 급성기 병원에 소속된 간호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 관련 의사결정과정을 심층 연구하여 계량적 분석이 줄 수 없는 통찰을 전달한 Shirey (2009)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연구의 미분화에 관해 간호학계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연구 대상자 문제인 듯하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간호사를 연구한 논문은 60.8%이었다. 이는 Kim과 Yoon (2002)의 연구에서 간호사 대상 연구가 62.5%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간호학 분야 학술

지 게재 논문 제 1저자의 82.9%가 간호학 분야에 속해 있는데 이들의 논문 중 60.3%가 간호사를 연구하였다. 간호사 대다수가 여성이고, 3교대 근무 조건으로 직장-가정 갈등 소지가 높으며,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휴먼 서비스가 많고, 높은 협력 요구 하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간호사는 분명 직무 스트레스의 고위험 집단이다. 또한, 간호학 학술지의 기본 취지는 연구를 통해 간호 이론, 교육, 실무 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있으므로 간호사가 다수의 연구 대상인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집단, 예컨대 사회과학분야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교사, 공무원, 서비스직 근로자 등 간호학 고유의 지식과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보다 다양한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im과 Yoon (2002)이 간호학 내 근로자 건강에 대한 관심 부족을 지적하며 대상자의 다양성 확보 노력을 주장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사 경향이 확인되는바,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연구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해본다.

결국 이는 간호학계 내 직무 스트레스 연구의 양적 활성화 문제로 이어진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 분야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는 의약학 분야와 사회과학 연구가 1990년대 대비 현재 거의 열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즉, 현재의 대상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재관련 실험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스트레스 대응훈련, 미술치료, 상담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검증한 7편의 실험연구에 비해 간호학 분야 직무 스트레스 연구 중 실험연구는 단 3편이었는데 최근 3년간의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의 42.7% (Suh et al., 2007)가 중재연구인 것에 비해 크게 미흡하며, Kim (2007)의 보건의료분야 내 직무 스트레스관리 중재연구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학자들은 간호 학문이 대상자의 건강 및 안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최상의 간호 실무를 제공하려면 근거중심 간호실무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높은 등급의 근거를 제공하는 실험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Mantzoukas, 2008). 향후에는 이러한 취지의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 2)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개선

연구 결과, ‘한국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는 현재 일종의 난맥상을 보였다. 가령, 간호학 분야에서는 Kim과 Gu (1986)의 도구가 14.5%를 차지하고 있었고, 산업의학과 산업간호학 등 보건학 분야에서는 KOSS를 위시로 JCQ나 JSQ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는 직무 스트레스 연구를 고찰한 이전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Choi & Jung,

2004; Kim & Yoon, 2002; Lee, 1996). 문제는 이보다 많은 논문이 자가 개발 도구(약 9%) 혹은 기존에 사용된 도구를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것인데(약 33%), '연구 대상의 특수성' (예: 교대근무 간호사), '기존 도구를 한국에 적용하기 어려움' 혹은 '지나치게 길거나 많은 문항' 등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라 하더라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의 문항을 임의수정하거나 점수 척도를 변경하여 쓸 경우 상호비교가 불가능해서 연구 결과의 축적과 통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남는다. 직무 스트레스 연구가 다루는 주제가 다양한 만큼 측정 도구를 단일하게 하자는 주장은 적절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지금처럼 측정 도구 간 장단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적절한 도구 선택의 가이드라인 또한 없는 상태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강화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의구심을 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연구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선행 연구들에서 발표된 기존의 표준화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2007).

### 3) 약한 이론과 분석 수준 문제

이론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개념들의 망이다. 이론에 입각하지 못한 연구는 선행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체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실용성을 입증받기 어렵다(Mick & Mark, 2005).

본 연구 결과 이론 제시 없이 일부 선행 연구가 제시한 변수를 선택하여 상관성을 확인한 뒤 곧바로 분석에 진입한 간호학 연구가 85.6%를 차지한 것은 Lee (1996)가 임상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분석한 논문에서 83.6%가 이론적 틀 없이 실시되었다는 결과 및 Shin 등(2010)이 대한간호학회지의 최근 2년간 게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 중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이 23.7%에 불과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반면 외국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이 44.5% (Anderson et al., 2003)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우리 간호학 연구 전체의 과제로 생각된다.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적 정의를 내린 간호학 연구는 34.2%이다. Lee (1996)의 연구 결과 개념적 정의를 내린 연구 논문 69.1%라는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Lee (1996)의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학위 논문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Burns와 Grove (1993)는 개념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구성타당도가 낮다고 하였다. 결국 개념적 정의의 부재 또한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 연구 결과를 양산하게 됨으로 추후 연구 결과의 해석, 적용 및 이

론구축에의 기여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이 '약한 이론' 이슈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단순하지만 명확한 견해가 도출되지 않은 연구 실정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모호한 직무나 역할 갈등은 잘 알려진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지만 반대로 단조롭고 도전이 없는 직무 역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 부여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전혀 할 일이 없는 직무 활동이 스트레스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Kang et al., 2005). 직무 재배치나 이동이 스트레스의 원인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의 논란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들은 여전히 직무 스트레스 연구 주제로 흔히 다루어지지만 견해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 사이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선택하여 관련 이론과 분석 틀을 폭넓게 비교, 고찰하는 개념 연구 시도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결과는 간호학 분야 논문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검증된 변수 대부분은 의약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요 변수로 검증된 반면, 의약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간호학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건강 및 질환 관련 변수들이 다양하게 분석에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도 역시 역할 개념과 직무 태도 등 다양한 변수들의 의미를 조사하고 있어서 향후 간호학 논문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탐색해 볼 만하다.

연구 내용상의 또 다른 문제는 '분석 수준'(level issue)이다. Klein, Dansereau와 Hall (1994)이 지적한 것처럼 조직 현상을 다루는 어떤 연구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나 레벨 이슈는 이론과 분석 수준이 맞지 않으면 개념과 방법론 사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고 자료의 대표성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추론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를 요한다.

이번 연구 결과, 간호학 분야 직무 스트레스 연구 대부분은 개인을 분석 단위(92.1%)로 하고 있었다. 일부가 조직 커뮤니케이션, 갈등, 리더십, 조직 문화 등 집단/조직 개념을 제시했는데 개념과 달리 실제 연구는 개인 단위에서 측정, 점수를 합산한 뒤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개인 효능감, 집단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집단 효능감을 개인의 인지된 효능감으로 측정하고 이때의 개인-집단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지 동질적인지 아니면 이질적인지를 논의되지 않은 채 개인 자료의 합산치가 분석되고, 결과 해석 시 집단의 수준에서 논의하는 경우이다(Ko & Kang, 2006; Yom, Yee, & Ko, 2002). 이로 인해 이론, 측정, 분석 및 해석의 수준이 상이해진다는 문제와 함께 응답자가 개인의 효능감과 집단의 효능감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응답했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다. 개인, 직무, 집단, 조직 모두를 자기 기

입 방식 설문에 의존하여 측정하게 되면 개념적 관련성이나 타당성과 무관하게 부정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운 직무 특성 및 조직 여건은 어떤 것이든 직무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 이 위험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Staw, 1984).

사실상 이 문제를 극복할 대안은 전혀 새롭지 않다. 즉, 이론과 측정 및 분석 수준을 일치시키도록 신중히 연구를 구상하고, 객관적인 자료 구득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인지를 묻는 것 외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할 학문적 공조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2.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국한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각종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나 학위 논문 등은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직무 스트레스 연구의 전체 동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사전에 분류 기준을 숙지하고 코딩을 완료했지만 코딩 자료의 신뢰도가 권장 신뢰도에 근접하는 바, 이후 연구에서는 자료 코딩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직무 스트레스 연구를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간호학 분야 직무 스트레스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199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395편을 간호학, 의학학, 사회과학 분야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연구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특정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타 학문 분야 연구에 비해 간호학 연구는 특징적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직무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자가 개발 도구를 사용하거나 선행 논문에서 사용한 도구를 임의 수정한 논문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간호학 분야에서 고유하게 파악되는 핵심어는 없었고, 영향 요인보다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었다. 의학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매개효과 분석 연구는 적다. 이론을 기반으로 구상된 연구 및 집단, 조직 수준의 분석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질적 연구 및 증례관련 실험연구가 보다 많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구 결과의 비교와 축적을 위해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론을 토대로 개인, 집단 및 조직 분석단위를 고려하여 관련요인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 수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신중한 연구 구상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무 스트레스 연구의 다학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제간의 숙의와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Anderson, E., McDonald, D. D., Mikky, I., Brewer, T., Kosciwowski, C., LaCoursiere, S., et al. (2003). Health care implications and space allocation of research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Nursing Outlook*, 51(2), 70-83. [http://dx.doi.org/10.1016/S0029-6554\(02\)05451-9](http://dx.doi.org/10.1016/S0029-6554(02)05451-9)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 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ns N., & Grove S. K. (1993). *The practice of nursing research: Conduct, critique and utilization* (2nd ed.). Philadelphia: Saunders.
- Chang, S. J., Koh, S. B., Kang, D. M., Kim, S. A., Kang, M. G., Lee, C. G., et al. (2005).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 297-317.
- Choe, M. K., & Park, O. S. (1993). The state of art, problems, tasks, and prospects of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2(1), 1-74.
- Choi, S. R., & Jung, H. S. (2004). An analysis of studies on clinical nurses' job stres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3(1), 40-47.
- Chung, Y. K., Kim, H. R., Park, S. Y., Hong, J. Y., Koh, S. B., & Chang, S. J. (2007). The effect of job stress on unemployment.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9(2), 115-124.
- Glasser, W. (2000). *Counseling with choice theory: The new reality therap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Harrison, R. V. (1978). Person-environment fit and job stress. In C. L. Cooper & R. Payne (Eds.), *Stress at work* (pp. 175-209). New York: Wiley.
- Herzlinger R. (1997). *Market driven health care: Who wins, who loses in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s largest service industry*. New York: Perseus Books.
- Kang D. M., Koh S. B., Kim S. A., Kim S. Y., Kim Y. J., Park, J. S., et al. (2005). *Job stress: Work-related stress*. Seoul: Korea Medical Book Publisher.

- Kang, M. S., & Song, B. S. (2008, August). *A study on the predictive, consequent, and moderating factors to analyze the job stress of emotional work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 Kassarjian H. H. (1977). Content analysi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 8-18.
- Kim, J. H., & Yoon, S. N. (2002). An analysis of studies of workers'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81 to 200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 618-628.
- Kim, J. H. (2007). A review of studies on the job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s (SMIs) conducted from 1991 to 2004.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6(1), 15-27.
- Kim, M. J., & Gu, M. O. (1984).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 measurement tool for staff nurses working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28-37.
- Klein, K. J., Dansereau, F., & Hall, R. J. (1994). Levels issues in theory development,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2), 195-229.
- Ko, Y. K., & Kang, K. H.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collective-efficacy and job stress in the nursing staf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 276-286.
- Lee, K. M. (2008). Evolution of organizational analysis in the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1992-2007.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16(3), 161-211.
- Lee, M. H. (1996). Analysis of studies on work stress in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8(1), 180-200.
- Mantzoukas, S. (2008). A review of evidence-based practice, nursing research and reflection: levelling the hierarch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2), 214-223.
- Mick, S. S., & Mark, B. A. (2005). The contribution of organization theory to nursing health services research. *Nursing Outlook*, 53(6), 317-323. <http://dx.doi.org/10.1016/j.outlook.2005.07.002>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0, December).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 Seoul: Author.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99, January). *Stress at work* (Issue No. 99-101). Cincinnati, OH: Author.
- Parker, D. F., & DeCotiis, T. A. (1983).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2), 160-177. [http://dx.doi.org/10.1016/0030-5073\(83\)90145-9](http://dx.doi.org/10.1016/0030-5073(83)90145-9)
- Rizzo, J. R., House, R. J., & Lirtzman, S. I. (1970). 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2), 150-163.
- Shin, H. S., Hyun, M. S., Ku, M. O., Cho, M. O., Kim, S. Y., Jeong, J. S., et al.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 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1), 139-149.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139>
- Shirey, M. R. (2009). *Stress and coping in nurse managers: A qualitative descrip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Indiana, USA.
- Staw, B. M. (1984). Organizational behavior: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the field's outcome variabl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627-666. <http://dx.doi.org/10.1146/annurev.ps.35.020184.003211>
-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et al.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1013-1019.
- Thoits, P. A. (1983) Dimensions of life events that influ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 evaluation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In H. B. Kaplan (Ed.),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pp. 33-103). New York: Academic Press.
- Yom, Y. H., Yee, J. A., & Ko, J. W. (2002).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limate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8, 605-614.
- You, M. S. (2010). An analysis of research on health care organization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20(1), 155-182. <http://dx.doi.org/10.4332/KJHPA.2010.20.1.155>